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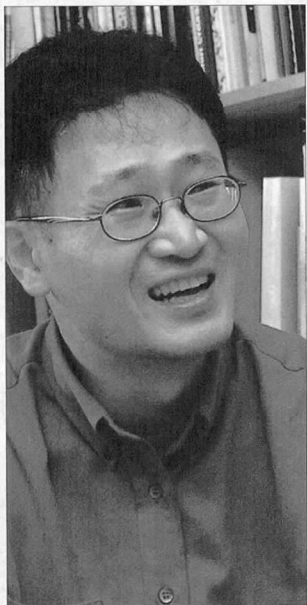


한길아트/A5신/328면/18,000원

다른우리/A5신/278면 내외/각 8000원

문예출판사/A5신/236면/12,000원

## 화가의 '눈'으로 신화 다시 들여다보기



“화가들이 읽었을 자료를 살살이 뒤져 읽고 그들의 눈을 통해 그림을 다시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된 신화의 세계지만 화가의 눈으로 다시 보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보티첼리가 만난 호메로스》 펴낸 노성두씨

근대화가들에게 그리스·로마 신화는 마르지 않는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될 만큼 서양정신사의 중요한 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근대화가들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했는가는 미적 상상력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살피는 계기도 된다.

미술평론가인 노성두씨(40)가 펴낸 《보티첼리가 만난 호메로스》(한길사)는 ‘비너스의 탄생’ ‘파리스의 심판’ ‘메두사’ 등 24개의 주제로 나눠 근대화가들이 그리스·로마신화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도상학적 관점에서 다룬 책이다. 고정된 신화를 회화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그 중심은 근대화가들의 눈에 맞춰진다.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의 눈을 통해 그림을 다시 보는 작업입니다. 즉 신화학의 관점이 아니라 미술사의 관점에서 그림을 읽는 일이죠. 바로 여기서 근대 미술이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쾰른대 철학부에서 서양미술사·고전고학·로만어문학을 전공하고 94년 귀국한 노씨에게 이 책은 잠시 쉬어가는 한 굵이에 해당한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서양미술사를 이해하는 1차 자료인 원전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에 다빈치·뒤러 등의 저서 1백여권이 모두 번역되면서 미학이란 분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림 바깥의 이론으로 그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참고문헌을 통해 그림 안에서 해석하는 새 경향이 자리잡았죠. 미술사 이해에 이들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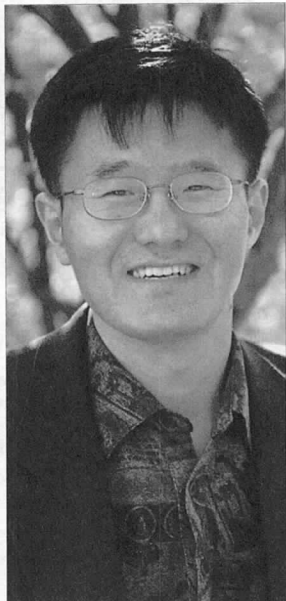
현재 그가 번역하는 1차 원전은 13세기 기독교 성자전인 《황금전설》, 고대 미술론을 담은 폴리니우스의 《바물지》, 비트로비우스의 《미술론》 등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책들이다.

“한 20년간 원전번역에만 몰두할 엄을 세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번역될지 모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운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틈틈이 그는 자신의 책을 낼 예정이다. 예컨대 원근법, 성서와 미술, 그리스 조각사 등이 그 주제다. 스스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 그는 글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열정이 고스란히 책으로 ‘번역’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자 개인의 소망만은 아닐 것이다.

— 김연수 기자

## 낮고 작은 '소수집단' 말 살리는 길 제시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특정 집단에게 속아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소수 언어를 살려야 합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저놈을 매우 쳐라〉  
〈그걸 말이라고 하니?〉  
펴낸 김슬옹씨

언어는 권력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가 비판의 힘을 갖지 못한 이유도 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권력자가 휘두른 언어의 폭력에 억눌려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특정 집단에게 속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소수 언어를 살려야 합니다.”

컴퓨터통신(천리안·유니텔 등의 ID: 또물또)과 초암교육문화원 등에서 독서지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슬옹씨(39, 연세대 사회교육원 강사)는 우리말의 쓰임새를 에세이식으로 풀어낸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저놈을 매우 쳐라》와 언어를 매개로 사회·문화적 모순을 비판한 《그걸 말이라고 하니?》(다른우리)를 통해 소수 언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먼저 언어의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층과 언론매체의 폭력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키는 교단에서의 언어 폭력도 심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글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사

회를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작은 집단의 언어를 살리는 길이 곧 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 중심주의로 펼치는 한글운동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한다. 언어는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금의 운동은 언어 자체의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운동은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다양성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철도고등학교를 나와 공무원 생활을 하던 그는 인생의 진로까지 바꾸며 국어학을 전공할 만큼 한글의 바다에 빠진 사람이다. 소수집단을 위한 독서클리닉에 관심이 많은 그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머지않아 책읽기에 관한 〈총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 오원진 기자

## ‘또다른 실천’으로서 모더니즘소설 조명



“모더니즘도 리얼리즘처럼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내면과 사회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형상화하지요”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펴낸 강상희 교수

문학의 사회적 실천 혹은 지사로서의 문인이 존

중받아 온 우리 문학사에서 모더니즘 소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강상희 교수(35, 경기대 국문학과)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문예출판사)을 펴냈다.

“모더니즘 소설의 중심에는 내면성이라는 요소가 자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적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내면성이기 때문이죠.”

그는 내면성을 정치성과 대립항으로 상정하고, 정치성이 결여되거나 불가능할 때 내면성이 우위에 올라선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거부한다. 오히려 내면성과 정치성은 인간에게 고유한 두 가지 존재방식이다. 그래서 그의 내면성 탐구는 인간을 철저히 해명하려는 노력이다. 이 책에서는 내면성의 토대를 이루는 이론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경험양상들, 내면성이 형상화되는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강교수가 모더니즘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80년대 중반에는 리얼리즘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저 역시 리얼리즘 문학에 문학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얼리즘의 관점들이 해명하지 못하는 공백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백을 논의하고 형상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반대지점에 있던 모더니즘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모더니즘 문학이 사회적 실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방식이나 드러내는 형태가 다를 뿐이다.

“모더니즘은 당대의 사회나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핵심적인 요소가 내면성이지요. 오히려 모더니즘은 내면과 사회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을 근본으로부터 반영하고 형상화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강교수는 “앞으로는 ‘문화 전체의 맥락에서 문학의 위상’을 탐색하는 것을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 김정은 기자